

가회동31번지의 한옥밀집지역 남쪽 진입로에 면해있다. 약 2m정도 높은 축대위에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 평면이다. 사랑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문간에 비해 남쪽으로 한칸이 돌출되었다. 사랑채 앞에 작은 사랑마당이 있다. 실측 당시 안채는 생활공간, 사랑채는 조각가의 작업실로, 마당은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대지면적: 48평
 건축면적: 22평
 실 측: 박제성, 조성심,
 이승철, 김태상(2000.8)

174

SCALE 1/400

